

서울·광주에 '전라도 반찬' 판매장

한마음공동체·학사농장과 가맹점 협약

5곳 시범 개설...마을반찬사업 판로 확보

전남도는 농어촌 여성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마을반찬사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서울과 광주 등 대도시에 전라도 반찬 전문 판매장을 개설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에 가맹점본부를 두고 있는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과 '전라도 반찬' 판매 가맹점을 시범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전국 85개소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마음공동체와 학사농장을 통해 서울시 노원구 중계점을 비롯해 광주 등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시범적으로 5개소의 전라도 반찬 가맹점을 개설,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2009년부터 마을반찬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 총 48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3개 마을이 본격 사업에 착수했고 15개 마을은 사업 준비단계다. 마을반찬사업은 마을부녀회 등을 통해 전통방식으로 전해져온 기준 반찬을 위생시설을 갖춰 규모화·상품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에 착수한 33개 마을은 김치류·장류·장아찌류 등 70여종의 반찬을 생산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장성군 동화면 송계마을과 북하면 특품사업단, 담양군 월산면 꽃차마을 사업장은 온라인쇼핑몰 운영과 수도권 소비자와의 직거래 등을 통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 발효식품 등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품목을 생산하는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마을에서 지난 한해동안 모두 2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근조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고급납품이 가능한 마을반찬 사업장을 일제조사해 담양 꽃차마을 장아찌류를 비롯한 6개 반찬사업장에서 생산된 10여종의 반찬을 우선적으로 입점·판매키로 했다"며 "사업 성과에 따라 대도시 위주로 확대 개설해 전라도 반찬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시 광주과기원 분원 유치 추진

교과부 등과 협의...시민단체 회의적 반응

광양시가 광주 과학기술원 분원 유치 작업을 물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주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해말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구중심 공과대학 유치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유치신청한 대학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성웅 광양시장이 대학유치가 지지부진하자 광주 과학기술원 분원 유치를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교과부, 광주 과학기술원 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실제 양 기관의 구체적인 실무협상은 없었으나 이 시장과 기술원 측 관계자가 만나 큰 틀에서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분원을 광양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커뮤니티센터 건물과 부지 3만여평 제공, 매년 200억 여원을 운영비·연구비·장학금 등으

로 지원해 줄 것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광주 과학기술원 유치 움직임에 대해 광양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신중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협 관계자는 "순천대 유치가 물건너가며 교훈을 얻었을건데 이번엔 과학기술원 분원유치가 타당하지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사안이다"며 "거액의 시 예산을 들여 유치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무언지 예산부분을 따져봐야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교과부 및 과학기술원 등과 유치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알릴 사안은 아니다"면서 "광양반원의 우수한 인력공급 차원에서 유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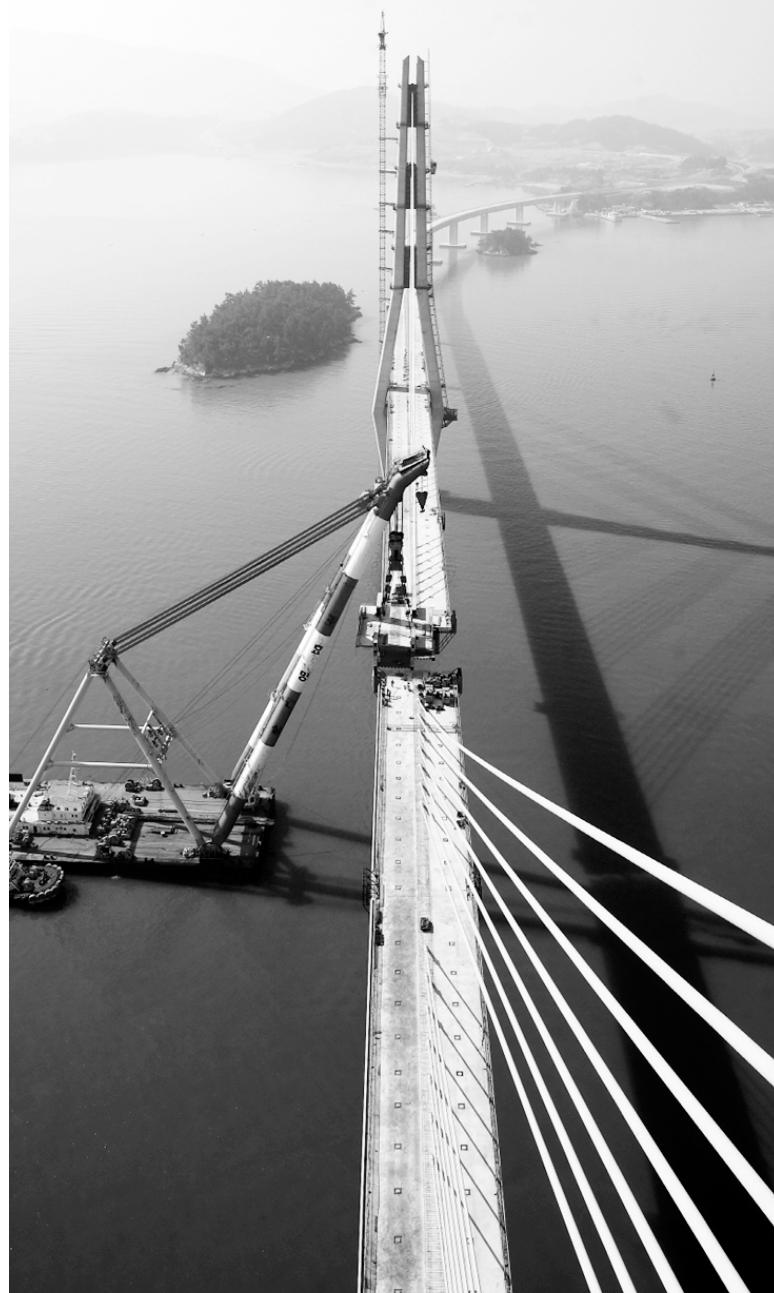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필리핀 까가얀데오로시와 교류 협약

도시다.

광양시는 이번 우호교류를 통해 필리핀 농수산물 등의 수출입 물량 광양 유치 등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의향서 교환은 양 도시가 지난 4월부터 접촉을 시작, 지난 6월 광양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까가얀데오로시를 방문한데 이어 이번에 까가얀데오로 시장 일행이 광양을 답방하면서 성사됐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막바지 공정...거금대교 연말 개통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와 금산면 거금도를 잇는 거금도

연도교(거금대교)가 연말 개통된다. 거금대교는 지난 2002년 12월 착공된 이 후 9년 만에 완전한 다리의 모습을 갖췄다.

/연합뉴스

전원주택

고흥 바닷가
황토집+텃밭
약 200평
전세 2500만원

고흥대전리
해수욕장 옆
펜션 모텔부지

3000평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
현재: 유자·매실밭
3000평(평당 5만원)

061)843-7005
010-8200-5662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매매)

- 토지 600평 건물 4,000평(매가 210억)
-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 60평 건물 700평(매가 110억/보증금 40억/월세 3,000만원)
- 토지 200평 건물 725평(매가 32억)
- 보증금 7억/월세 약 1,700만원
- 토지 164평 건물 600평(매가 83억)

보증금 6억/월세 1,700만원

토지(매매, 상무지구)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49㎡(142평)-매기 평당

1,200만원(유동기능식당업종)

■ 833㎡(25평)-평당 1,300만원

(상무지구)(변화기 사거리코너)

■ 1,980㎡(600평)-평당 1,200만원

(상무지구)(유홍기능)

■ 3,400㎡(1,000평)-평당 750만원

(시청앞)(회사사옥, 오피스텔)

등 적합

■ 동립동(생산도시) 원암~하남

간대로변 4,470㎡(약 1,352평)

- 평당 330만원(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이드리겠습니다.

★ 이우미나 전화 주시시오★

☎(FAX) 223-5221 헌 011-609-5221

(광주은행 신분점/대인동 소방서/전기)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 222-4994, 010-2632-5659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국성군 육군면 디기구주택 대지 693 건평 200
- 디기구 16세대 대출 천 전세 7천 월세 100평 2억 3천
- 총장로 5가 수퍼 대지 27 공시지가 1억 9200 매도 1억 8천
- 금남로 5가 대지 80 건평 300 공시지가 13억 7천 매도 10억 3천
- 광신구 운동장 흙토이어 부근 생활신도시 587평 대출 1억 7천 공시지가 2억 5220만원 매도 2억 6천
- 남구 송동동 그린밸트 산 8850평 공시지가 2억 5800 대출 5500 대출 담보용 적합 매도 1억
- 서동 원룸 건물 대지 69 건평 161 원룸 9 투룸 0 대출 1억 3천 전세 6천 원 130 57개는 공실 2% 8천
- 중흥동 산지역 90평 원룸등 적합 1억 6600
- 북구 동림동 심호아파트 상가 2층 41평 교회, 포교당, 독서실 적합 5천만원
- 금남로 5가 대로변 7층 건물 대지 171 건평 877 지 600+5층 110평은 공실이 고장난 1억 1000만원 신도시 40억 3800만원 대출 27억 매도 30억
- 남구 싸우나와 모텔 등 대지 257 건평 670 평 7층 건물 사업 성 좋은 16억
- ■ 매도
- 학군은 주제 대지 100평 1800만원 농촌생활 적합
- 투자 가치 있는 무동산 자리 그린밸트 산 담양군 남면 13544 평 공시지가 1억 5500만원 매도 3 양 38평 지 3300평
- 힘 험 해보면 영업성 좋은 모텔 대지 321 건평 210 객실 21 행 4 6 천 현금을 부풀리고 교회기능 10억
- 진주군 대구면 비단가 포장도로를 짚종지와 일어 18985평 남향 경관좋은 미령항구에서 기까움 연수원, 사찰, 기도원 등 적합 4 55 천
- 진주군 허준면 춘양면 남광주 골프장 입구 포장도로를 2000평 1억 2천
- 총장로 5가 2층 주택 대지 27 6500만원

T. 222-4994, 010-2632-5659 동구 총장로 5가

전남 농산물 330억원 어치 팔았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73만명 다녀가...내년부터 국제행사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도내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 소득을 창출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열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73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수출계약과 친환경농·특산물 판매, 현장판매 등 총 330억원의 소득을 창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미국, 캐나다 등 8개국 15명의 해외 유동비바이어와 71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과 캐나다에 연간 400만 달러 이상 고급수제약도 맺었다.

또한 국내 브랜드 백화점 등 5개 대형 유통업체와 친환경농산물 230억원의 구매약정을 성사시켰다.

전남도는 지난 2002년 '남도농업박람회'로 시작해 2005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로 명칭을 바꿔 박람회를 매년 10월 개최해 왔다.

첫 박람회 당시에는 농산물 판촉액이 5100만원에 불과했으나 ▲ 2003년 121억원 ▲ 2005년 261억원 ▲ 2007년 246억 5000만원 ▲



'제10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곤충산업관에서 물레를 돌리며 누에꼬치에서 명주실을 맵는 체험을 하고 있다.

영역으로 구분된다.

도는 내년 국제 농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개방화에 부응한 농업의 활로 개척과 미래농업 비전제시를 비롯해 선진농업 기술 정보교류, 농산물 마케팅 전략의 국제화 추진, 생산유발 등 자·간접 수입을 통한 경제적 과급효과 등 과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지금까지 박람회를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세계인이 참여하는 국제 농업박람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고흥군 '비전 5000 프로젝트' 박차 내년도 사업 보고회

고흥군이 농업·수산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전 5000'은 ▲ 5000만원 이상 고소득 농립업 5000가구 육성 ▲ 농수산식품 수출 5000만 달러 달성을 달성 ▲ 농림어업 소득액 5000억원 이상을 달성을 하겠다는 민선 5기 역점시책

이다.